

# 건축을 위하여! 건축사를 위하여!

- 국운 융성과 더불어 건축사의 희망이 솟아오르기를...

**For the sake of Architecture! For the sake of Architects!**

- Expecting to rise up architects' hope with prosperity of nation

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운 융성의 해가 찬란하게 떠올랐습니다.

2010년은 구한말 세계 강대국의 각축 속에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이념의 대립 속에서 한반도를 다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만든 6.25가 발발한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모두 역사적으로 스스로 변화하면서 발전시키거나 힘을 기르면서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깊이 새겨주고 있는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돌아켜보면 지난 한 세기가 정말 다사다난했던 시대였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100년의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의 100년으로 만들어 이제 무한한 미래로 도약하려는 백호가 되었습니다.

우리건축사법과 건축사가 탄생한지는 45년이 되었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근 5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건축사는 면허에서 자격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국가 간에 상호 인정해야 하는 국제자격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건축사의 입장은 오히려 희망적이라고 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어둡고, 지나치게 공급과잉이 되고 있고, 사회적 위상은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치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새롭게 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2009년 한 해 동안 건축사의 살길을 위해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녹색성장시대 친환경건축사로 다시 태어나자, 새 일을 준비하자, 건축사단체들을 일원화하자, 건축문화시대를 맞이하여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시등록하여 건축장학단체로서 권위를 회복하자, 사회적으로는 이익단체에서 전문가단체로 독보적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변신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길만이 시대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복합적이면서도 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대처방안이자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친환경건축사교육은 새해에도 계획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협회의 목표는 전 건축물이 친환경건축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는 것이고 전 건축사가 친환경전문가로 자격을 갖추고 동시에 협회가 친환경건축인증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이 장기목표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실천하며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면 순회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사단체통합문제는 아시다시피, 지난 11월3일 임시총회에서 60% 대의원이 찬성해 주셨지만 의결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하여 정관개정이 그만 부결되었습니다. 2, 3개월 동안 전국순회간담회까지 하면서 통합의 대의를 설명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회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는 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회원님들의 합의를 더 이끌어내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집행부를 대표하여 사과드립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일원화되고 세력이 배가될 수 있다면 기존 회원님들께 손해가 나는 일일까요? 지금 협회재산에 축이 나갔습니까? 교회의 예를 들면 선배신도들이 교생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새 신자들이 물밀 듯이 넘쳐 들어와야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지 성전건축의 기득권을 주장하며 문턱을 높여 새 신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한다면 얼마가지 않아 그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협회 우리회원님들이 보다 넓은 마음으로 단체통합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며 단체일원화와 회원배가 운동에 앞장선다면 분명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회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활발하게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고 회원들의 진정성과 희망사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면, 결코 단체통합이 건축사들의 미래에 불이익을 주거나 협회에 손해를 끼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님들의 바른 이해와 침묵하는 다수의 참다운 여론이 중요합니다. 새해에는 회장이나 집행부의 주장이 아니라 회원님들의 뜻에 따라 집행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모두 목소리를 내어주시고 합의를 이루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지혜롭게 준비를 하며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분야에서 건축사업무에 걸림돌이 되거나 시대상황에 따라 건축문화시대 건축사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법과 제도들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건축사권익과 생존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협회를 통해 능력을 합쳐주시고 단결하여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시고, 비난이나 비판보다는 신뢰와 단결을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나무젓가락이 여러 개 뭉치면 약한 것가라도 부러뜨리기 어렵습니다. 건축사 하나는 약하더라도 뭉친 건축사는 약하지 않게 합쳐주시고, 우리의 숙원이었던 공제조합 문제도 계획대로 잘 되리라 믿습니다. 어렵더라도 언제나 희망을 잃지 말고 후배건축사들에게 보다 좋은 전통과 터전을 남겨줍시다.

건축을 위하여! 건축사를 위하여! 계속 정진해 나갑시다.

새해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길 빕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



**최영집 / Choi, Young-jeep, KIRA**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약력**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 건축문화의 해(1999) 기획위원장, 사업위원장
- 서울건축사회 부회장 · 회장
- 한양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 서울특별시 심의위원
- 현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탐 대표 국가보훈처 심의위원